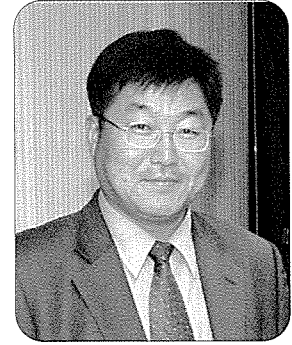


사회복지의 대상과 관심 달라져야 한다



이 호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문변호사

며칠 전 출근하면서 신문기사에서 나의 눈길을 끄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미국사회, 특히 젊은 시절 고생하며 지수성가한 CEO들이 자신의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때에 '웨이터 룰' 즉,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손님들의 태도를 금과옥조로 여긴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내가 그들의 상대방으로 만나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쉽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법률 자문도 서비스업이라는 평소의 소신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평해 왔지만 의뢰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되새겨 보니 미흡한 점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나 스스로는 나의 고객들에게 잘해 왔다고 오만하면서 여타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나 싶다.

나였더라면 식당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더 밝은 미소로 대했을 텐데, 손님이 짓궂게 해도 슬기롭게 받아 넘겼을 텐데,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손님 마음을 풀어 드렸을 텐데... 내 고객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했고, 식당 손님의 입장에서 나의 '웨이터 룰'을 평가해 보아도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읽은 신문기사가 주는 교훈으로 스스로를 반성하는 긴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이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입장, 상호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입장... 이러한 모든 관계들 사이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쟁 수단이 확보된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규칙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겠지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규칙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과 늘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점진적으로, 아니 어찌 보면 과거에 비해 급속하게 팽창하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미래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자격증 시대를 맞이하면서, 순수한 열정만으로도 가능한 일로만 생각해 온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변모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의 대규모 충원과 각 대학 사회복지 학도들의 자격증 취득 열풍은 다른 분야로 유출되던 사회복지전공자들을 사회복지 영역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있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예산 규모의 확대,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사회복지분야의 hard ware적 요소는 갖추어 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soft ware를 충족시켜주면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을 능가하는 복지대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일선에서 직접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분발과 의지가 필요할 때다. 연봉만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대졸 취업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액수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고 업무량 또한 과도하여 기피 업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로서 행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 일을 통한 크다란 보람을 누릴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점점 인기 직종으로 변모해 가리라 본다.

15년전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던 당시에는 졸업자들의 진로가 각종 고시, 언론계, 회사원 등으로 나뉘었고, 전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실제로 시설이나 기관에서 전공을 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사회복지전공을 떠나 법조의 길에 들어선 입장이라 감히 떳떳하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포진하여 개별 영역에서 힘을 합쳐 응집력을 키우는 것도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 사회의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사건을 특화하여 많이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악덕 채무자들이나 사행성 부채를 가진 자들은 보호할 수도, 보호해서도 안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을 면책시켜 새롭게 사회의 생산 인력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시대의 당위성이 상존한다.

자신의 가족들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혹은 친지를 위해 선의로 서준 보증 빚으로 인해,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로 채무를 지게 되어 신용불량에 이르게 된 많은 채무자들을 상담하면서 이제는 사회복지의 대상과 관심도 달라져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새롭게 생겨나는 빈곤층이나 정신적 이탈,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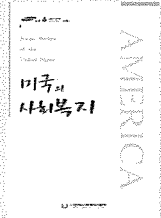
인간은 누구나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위치를 반복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때로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에서 언제까지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야할 남은 길은 행복하지 않을까 한다. 

신간안내

미국의 사회복지

펴낸 곳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저자 : 강선경 외



21세기 사회복지 선도국가인 미국의 사회복지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이 책자는 분야별로 기관들을 분류해 미국의 사회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워싱턴 DC와 뉴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미국의 사회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간된 미국의 사회복지 소개 책자 중 가장 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해외 연수시 방문한 미국의 복지기관들도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론

펴낸 곳 : 공동체

저자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철저히 해부하여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모두 모았다. 그리고 각 절이 끝나는 부분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박스로 정리했다.

제1부 총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급여, 전달체계, 재원, 역사 등에 대해 다루고 제2부 사회보장의 이해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보장연금, 빈곤과 공공부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